

## 기미론에 대한 문헌적 연구

김인락\*

### I. 서론

氣味論이라 함은 酸苦甘辛鹹 五味와 寒熱溫涼 四氣로서 한약재의 약효를 추정하는 것이다. 氣味는 『신농본초경』에 각각의 약재에 대하여 실린 이래로, 역대 한의서에 거의 어김없이 실려 있다. 『淮南子』 「卷19 修務訓」에 “옛날에 사람들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고기를 먹고서는 질병에 걸리고 독에 상하였다. 신농씨가 이에 비로소 백성을 가르쳐 오곡을 파종하고 땅이 적당한지, 건조한지 습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높은지 낮은지를 살피고, 백초의 맛을 보고, 물이 단지 쓴지를 맛보아 백성들로 하여금 피해야 할 것과 나아가야 할 것을 알게 하였다.”<sup>1)</sup> 라고 한 것이 신농씨가 약맛을 보고서 약효를 알았다는 기록으로서는 최초이다. 따라서 신농씨가 직접 먹어보고서 기미를 안 것이지만, 신농씨는 황제와 더불어 실존인물은 아니고 신화적인 인물이다.

열이 많은 자는 인삼을 먹으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 되었고, 한의계에서도 한열온량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며, 진단학에서도 ‘음양·표리·한열·허실’을 팔강이라하여 한열을 중요시 하는데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그다지 없다. 따라서 약재의 한열온량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기에 앞서 우선 옛사람들이 한열온량에 관하여 언급한 것을 『내경』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의미를 정립하고, 실험적 검증의 방향을 설정하려 한다.

### II. 본론

#### 1. 氣와 한열

기미론에서 미의 의미는 『내경』과 『신농본초경』이 같다. 하지만 기의 의미는 두 책에서 다르게 사용되었다. 『내경』에서는 기를 냄새로 보았는데 『신농본초경』에서는 한열온량으로 보았다. 『내경』에서 기미를 냄새와 맛으로 본 것은 세상과 인간을 보는 우주관에 근거한다. 예로부터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는데 우는 시간이고 주는 공간이다. 그리고 사람을 소천지라고도 하여 하늘과 땅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무한하나 인간은 육체와 수명이 한정되어있다. 그리고 인간은 소우주로서 하늘과 땅과 기운이 교류한다고 보았다. 하늘과 땅은 우주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소우주이므로 대우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받아야 한다. 하늘로부터는 천기를 땅으로부터는 지기를 받는데, 오늘날의 용어로 본다면 천기는 산소이고 지기는 음식물이다. 천기는 코를 통하여 기관지를 거쳐 폐로 들어오고, 지기는 입을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연구부

1) “古者, 民茹草飲水, 采樹木之實, 食羸蠃之肉, 時多疾病毒傷之害. 神農乃始教民, 播種五穀, 相土之宜, 燥濕, 肥瘠, 高下, 嘗百草之滋味, 水泉之甘苦, 令民知所辟就, 當此之時一日而遇七十毒.”

거쳐 식도를 통하여 위장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내경』에서 오기를 오장에 대응하는 념새로 보았는데, 『소문』 「六節藏象論」의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를 예로 들 수가 있다. 하늘과 땅이 교류하는 것을 『주역』에서는 ‘地天泰’라고 한다. 이와 반대가 되면 ‘天地痞’인데 하늘의 기운은 위쪽에 머물고 땅의 기운은 아래에 머물러 서로 오고가지 않는 것이다. 『소문』 「음양응상대론」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이중 맑은 기운이 폐로 올라간다고 하였는데 하늘과 땅이 기운을 교류한다는 의미이다. 호흡을 할 때 복식호흡을 권장하는 이유도 배를 움직여 하늘기운을 받아들이므로 천지의 기운이 잘 교류하여 ‘地天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신농본초경』에서는 『내경』과는 달리 기를 한열온량으로 보았다. 이를 4기라고 한다. 사기는 사계절과 통하여 온은 봄, 열은 여름, 량은 가을, 한은 겨울의 기운과 같다. 『周禮』 「天官冢宰下·食醫」에서 “凡食齊視春時, 羹齊視夏時, 醬齊視秋時, 飲齊視冬時.”라고 하였는데, 鄭玄이 주를 달기를 “飯宜溫, 羹宜熱, 醬宜涼, 飲宜寒”이라 하고 또 “寒熱溫涼通四時爲言.”이라 하였다. 밥은 봄기운처럼 따뜻하게 하고, 국은 여름기운처럼 뜨겁게, 장은 가을처럼 시원하게, 물은 겨울처럼 차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맛이 가장 좋고 또 효과도 낫다는 것으로서 사계절에 따라서 양생하는 법을 밝힌 『소문』 「사기조신대론」의 사기와 의미가 통한다. 청대 李中梓의 『醫宗必讀』 「藥性合四時論」에서 “한열온량은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물을 엮어 되담기 어려운 것과 같다.”<sup>2)</sup>라고하여 진료시에 질병과 약재의 한열온량을 중시하여야 한다 하였다.

## 2. 한열과 음양

한열온량을 음양론으로 본다면 寒과 涼을 함께 묶고 溫과 熱을 함께 묶어 한열로 본다. 陰과 陽은 세상의 모든 것을 陰과 陽이라는 두 측면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려는 것이므로 陰이라고 한 것에는 이미 陽이 포함되어 있고, 陽이라고 한 것에는 이미 陰이 포함되어 있다. 관찰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이것을 陰과 陽 두 방면으로 관찰하고 표현하여야지 陰 하나로만 관찰하고 표현하거나, 陽 하나로만 관찰하고 표현하여서는 약속체계에 어긋난다. 陰과 陽, 兩面으로 관찰한 것 중에서 陽이라고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 역시 陰과 陽으로 관찰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純陰·純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純陰·純陽은 實在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일 뿐이다.

인간을 陰과 陽, 兩面으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을 구체적으로 든다면 左右·上下·前後·氣血·形氣·心身등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인간을 어떤 체계로 관찰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用語는 같더라도 의미범위는 달라질 수가 있다. 氣를 예로 든다면 『소문』 「보명전형론」에서는 “하늘과 땅이 기운을 합한 것을 사람이라 한다.”<sup>3)</sup>고 하였는데 이 때에는 氣가 인간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氣를 두 방면으로 나누어 天氣와 地氣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이다. 血氣란 용어로 인간을 관찰하고 표현한다면, 이때에 氣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절반이다. 물론 氣라고 표현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2) 寒熱溫涼一匕之謬, 覆水難收.

3) “天地合氣, 命之曰人.”

면 여전히 氣와 血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의 氣는 「보명전형론」의 天氣와 地氣 중에서 天氣와 의미범위가 같다. 또 『영추』 「본신」에서는 “하늘의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德이라고 하고, 땅의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氣라고 한다”<sup>4)</sup>고 하였는데, 이 때에는 인간을 德과 氣라는 두 방면으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氣는 德에 비하여서는 陰에 속한다. 따라서 氣는 「보명전형론」의 地氣와 같고 氣血로 볼 때의 血과 같다. 德은 「寶命全形論」의 天氣와 같고 氣血의 氣와 같다. 이처럼 「本神」의 氣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氣血體系에서의 氣와 용어자체는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

인간을 精·氣·神이라는 체계로 관찰하고 표현한다면 氣는 인간을 3등분한 것중 하나일 뿐이다. 氣와 血 또는 氣와 德으로 본 것에 비하여서는 의미범위가 줄어든다.<sup>5)</sup> 따라서 한열로 볼 때의 한과 열은 한열온량이라 할 때의 한과 열과는 용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 3. 한열과 四氣

한열을 보다 세분화하여 한은 한과 량으로 열은 온과 열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한열온량 사기를 四性이라고도 하는데, 송대의 『본초연의』에서 “무릇 氣라고 하는 것은 냄새로서 기운을 취한 것이고, 기가 한열온량하다는 것은 약의 성질이다.”<sup>6)</sup>한 것이 처음이다.

### 4. 한열과 오행

한열온량이 반드시 4가지로만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니다. 계절변화가 끊임없기 때문에 한열온량도 편차를 무수히 많이 할 수가 있다. 한열온량 사기에다 짚을 하나 더 넣어 오기라고도 한다. 4기5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5기5미이며, 5는 五行을 근거한 것이고 五行은 계절변화와 관련이 있다.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시원한데 과연 여름과 가을 사이인 장하때는 따뜻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을까? 여기에서 오행의 의미를 살펴보자.

#### 4-1. 土와 土의 兩面性

五行에서 토는 특이하게도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가 목화금수와 대등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목화금수에 종속되는 경우이다. 1년 365일로 본다면 전자는 목화토금수가 각각 72일 정도씩을 차지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목화금수가 각각 72일 정도씩을 차지하고 토는 18일 정도씩 4등분되어 목화금수끝에 붙는 경우이다.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라고 하는 경우가 전자에 속하고, 寅卯木 辰土 巳午火 未土 申酉金 戌土 亥子水 丑土라고 하는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sup>7)</sup> 오행에서 토가 양면성을 띄는 이유는 오행이 계절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4) 天在我者, 德也. 地在我者, 氣也.

5) 김인락. 「고려시대이전의 기초의학」. 신순식 외. 『고려시대 이전 한의학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1996: 27-28.

6) 凡稱氣者, 卽是香, 取之氣, 氣寒熱溫涼卽是藥之性.

7) 이러한 것은 오행뿐아니라 음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양은 모든 것을 음과 양이라는 양면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므로 음이라고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전히 음과 양 모두로써 관찰하고 표현하여야 한다. 음과 양은 대명사이어서 구체적으로는 가리키는 것이 무한히 많을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상하·좌우·전후·기혈·영위·심신등이 있다. 『素問』 「寶命全形論」에서는 인간을 기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를 하늘기운과 땅기운으로 나누었다.

토를 계절과 관련지우면 長夏라고도 하고 四季라고도 한다. 장하는 여름과 가을사이에 엄연히 계절 하나로 있다.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끝에 18일 정도씩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계절 보다는 비중이 떨어진다. 기후로 본다면 토는 濕과 관련이 있다. 토가 습기와 관련이 있고 장하가 여름과 가을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절로는 장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1년의 계절 변화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뚜렷하지만 장마는 이들보다는 뚜렷하지가 않으므로 토는 장하와 사계 양면성을 띤다고 본다. 오행에서 토가 독립적이냐 않느냐에 따라서 오행의 상생상극이 적용될 때 달라진다. 토가 하나를 차지한다면 오행의 상생상극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토가 분산된다면 오행의 상극이 적용되기가 힘들어 진다. 이때에는 목과 금이 서로를 견제하고 수와 화가 서로 견제를 한다. 『周易』에서 ‘龍虎相搏’이라고 하고 ‘水火不相射’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 4-2. 五行과 五臟

계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소문』 「사기조신대론」에서 봄에는 드러내고 펼친다고 하고, 여름에는 번창하고 이삭이 쫄아들고 있으며, 가을에는 받아들이고 담는다하였고, 겨울에는 닫고 감춘다고 하였다.<sup>8)</sup> 「육기진장론」에서는 봄에 만물이 시작하고 생한다하였으며, 여름에 성하고 자라난다하였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겨울에 합하고 감춘다고 하였다.<sup>9)</sup>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인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오장의 기능이다. 「장기범시론」에서는 오장의 기능을 간은 흠어지려 하고, 심장은 연해지려 하며, 비장은 부드러워지려 하고, 폐는 거두어들이려 하며, 신장은 단단해지려 한다고 하였다.<sup>10)</sup> 이것은 계절변화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맥상도 계절변화와 일치한다. 현맥을 예로 든다면 「육기진장론」에서는 봄에 만물이

---

『靈樞』 「本神」에서는 인간을 하늘기운과 땅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하늘기운을 德이라고 하고 땅기운을 氣라고 하였다. 그러하므로 전자의 기는 인간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후자의 기는 인간의 반을 의미한다. 마찮가지로 인간을 정신기혈이란 틀로 볼 때의 기와, 기혈로 볼 때의 와, 정기신으로 볼 때의 기는 의미범위가 다르다. 똑같은 용어이지만 관찰하고 표현하는 틀을 어떠한 것을 취하였는가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는 달라지므로 『內經』을 해석할 때에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8) 發陳 …… 蕃秀 …… 容平 …… 閉藏.

9) 始生 …… 盛長 …… 收成 …… 合藏.

10) 肝欲散·心欲軟·脾欲緩·肺欲收·腎欲堅.

五味의 작용은 매운 맛은 흠고 짠맛은 연하게 하고 단맛은 부드럽게 하며 신맛은 거두어들이고 쓴맛은 단단하게 한다. 이런 작용과 오장의 기능을 함께 생각한다면 매운 맛은 간이 봄기운처럼 散하려는 것을 도와주고, 짠맛은 심장이 여름기운처럼 軟해지려는 것을 도와주며, 단맛은 비가 장하기운처럼 부드러워지려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신맛은 폐가 가을기운처럼 거두어들이려는 것을 도와주며 쓴 맛은 신장이 겨울기운처럼 단단해지려는 것을 도와준다.

비롯하고 생겨나는 것처럼 맥의 기운도 올 때는 연하고 약하며 가볍고 허하면서 매끌매끌하게 잘 뛰며 단정하고 바르며 길다라고 하였다.<sup>11)</sup> 맥상을 설명하는 방식도 계절변화가 이러하므로 맥상이 이러하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간은 소우주이므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인간에게서도 그대로 일어난다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도 계절변화에 맞추어지는데 「四氣調神大論」에서 자세히 언급되어있다. 「영란비전론」에서는 오장의 기능을 정부조직에 비유하였다. 이는 인간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부조직이 이루어진 뒤에라야지 가능하므로 자연변화로써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후대에 나온 것이다.<sup>12)</sup>

토의 성질이 두가지이듯이 五臟에서는 脾가 肝·心·肺·腎과 대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속적이기도 하다. 「옥기진장론」에서는 脾가 정상적일 때는 독립된 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병적일 때에만 드러난다고 하였다.<sup>13)</sup> 脾의 역할중 하나는 肝·心·肺·腎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다른 것들보다는 비중이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그러더라도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脾臟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독립성과 종속성 양면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예는 「선명오기론」에서 찾을 수가 있다. 왕빙본에서는 五行에 충실하여 “五邪所見, 春得秋脈, 夏得冬脈, 長夏得春脈, 秋得夏脈, 冬得長夏脈.”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太素』 「四時脈診14」에서는 長夏를 삭제하고 가을에는 봄의 맥을 얻고 겨울에는 여름맥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봄과 가을이 서로를 억제하고 여름과 겨울이 서로 억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소문』 「평인기상론」에서는 특이하게도 비장의 양면성을 모두 적용하였다. 이 편에서는 맥상에 의하여 五臟을 5단계로 진단하였는데 5단계란 정상적인 것과 병적인 것, 죽을 것, 다른 계절에 병들 것, 지금 병들 것이다. 간과 심장에 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봄에는 간의 맥이 우세한데 모맥이 드러나면 가을 기운이 봄인데도 왕성한 것이다. 마침 계절이 봄이어서 간이 왕성한 때이므로 가을이 되어야 간이 세력이 줄고 肺가 왕성하여 간이 병들게 된다. 만일 毛脈이 심하면 비록 봄이긴 하지만 폐가 왕성하고 간은 약하므로 지금 바로 간이 병든다. 심장도 이와 같은 논리이다. 그러나 가을과 肺를 논함에 있어서는 화극금의 이치가 사용되지않고 있다. 가을에 모맥이 드러나면서도 弦脈이 있으면 봄에 가서 병들고 弦脈이 심하면 지금 바로 병든다고 하였는데 화극금의 원리가 적용될려면 현맥이 아니라 鉤맥이어야 하고 봄에 가서 병들 것이 아니라 여름에 가서 병들어야 한다. 겨울과 신장에 대하여 논함에 있어서도 토극수의 원리가 적용되지않고 있다. 石맥이 있으면서 鉤맥이 있으면 여름에 가서 병들고 구맥이 심하면 지금 바로 병든다고 하였는데 토극수의 원리가 적용될려면 구맥이 아니라 緩맥이어야 하고 여름이 아니라 장하이여야 한다. 결국 이편에서는 금과 목이 서로를 견제하고 수와 화가 서로 견제를 하는 셈이다.

11) 春脈者, 肝也, 東方木也, 萬物之所以始生也, 故其氣來濡弱軟虛而滑, 端直而長, 故曰弦, 反此者病.

12) 이 편에 나오는 관직명중에서 中正과 州都是 魏의 曹操이후에 설치된 것이다.

13) 脾 …… 善者不可得見, 惡者可見.

이렇다면 脾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하지않아야 자연스러울 것인데도 여전히 脾에 대하여서도 언급을 하여 장하에는 연하면서도 약한 비맥이 있는데도 석맥이 있으면 겨울에 병든다고 하였다. 오행의 상극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목극토이므로 석맥이 아니라 현맥이어야 하고 겨울이 아니라 봄이어야 할 것이다.

『내경』에서는 도가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인간사회에 관하여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개인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한쪽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란 큰 범위에서는 같다는 생각이 짙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이 다르다는 것은 『영추』 「음양이십오인」과 「통천」 2편뿐이다. 이 2편에서도 인간을 오행의 틀에 맞추어 5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인간이 제 아무리 체질이 다르다 할 지라도 체질에 구분없이 누구나 때가 되면 밥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하는 등 인간이란 큰 범위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내경』의 기본 생각이다.

『내경』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바로 시간론이다. 시간은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지고 뜨며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한해가 간다. 우연의 일치인 지는 몰라도 중국이 온대지방이었으므로 계절변화가 뚜렷하여 이런 사고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농업민족이었으므로 계절변화는 절대적이었다. 1년동안 기후는 따뜻하다가 덥다가 무덥다가 시원하다가 추워지는데 이를 봄 여름 장마 가을 겨울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옛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생·장·장·노·사라고 하고 또 생·장·화·수·장이라고 하였다. 봄이 되면 만물은 싹이 터서 땅에서 나오고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어난다. 자연이 이렇게 변하므로 인간도 이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새벽이면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오게 되고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오행은 옛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이었고 모든 것이 이런 틀에 맞게 되었다.

한약에도 이런 성질이 있다고 보아, 크게는 음양의 틀에 맞추어 한열이라 하고 작게는 5행의 틀에 맞추어 한열온량평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약물이 온하다는 것은 봄의 기운과 상통한다. 열하다는 것은 여름기운과 상통하고, 쭈하다는 것은 장하와, 량하다는 것은 가을과, 寒하다는 것은 겨울과 상통한다.

따라서 한열을 세분화하여 寒熱溫涼이 되고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평이 하나 더들어가지만 이를 더 세분화한다면 온에도 대온과 소온으로 한도 대한과 소한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를 문헌적으로 가장 먼저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오보본초』이다. 『오보본초』는 吳普가 지은 것으로, 그는 이외에도 약을 생으로 할 때와 익힐 때의 사기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파두나 대두를 생으로 사용하면 따뜻하지만 익히면 차가워진다고 하였다.

## 5. 四氣와 인간과 계절

여기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한열온량의 기준이다. 한열온량의 기준을 어느 것에다 두는가는 각자가 다를 수가 있다. 똑같이 20℃ 물한잔일 지라도 몸이 더운 자는 차지않다 할 수 있고, 몸이 찬 사람은 차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맛에 있어서도 입상에서 환자가 느끼는 맛과 일반인이 느끼는 맛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대황·황련·황금·용담등을 처방하여도 환자는 그다지 쓰지 않고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한열온량

과 산고감신함을 추정하는 기준이 되느냐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기준점을 해결할 실마리는 『내경』 「평인기상론」에 있다. 이 편에 의하면 의료인은 질병 없이 건강하여야 하고, 의료인자신의 건강을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 질병을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단하는 시간은 해가 뜨려고 하는 새벽이고, 아침을 먹기 전으로서 외부환경과 인간이 양에도 치우치지 않고 음에도 치우치지 않은 시간이라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의료인은 건강하여 맥박과 호흡의 비율이 4:1로 되어 있다. 숨을 내쉬는 동안에 맥이 2번 뛰고 숨을 들이쉬는 동안에도 맥은 2번 뛰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은 자신의 호흡을 기준으로 환자가 맥이 몇번 뛰는 가를 측정한다. 의료인자신이 호흡을 1차례 할 때 환자의 맥이 6번을 뛰면 온병이고, 의료인이 호흡을 1차례 할 때 환자의 맥이 2번만 뛰면 이는 기운이 적은 것이다. 만약 호흡을 1번하는 동안에 맥이 8차례나 뛰면 환자는 곧 죽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처럼 의료인은 건강하므로 건강의 기준을 자신에다 둔다. 호흡도 고르기 때문에 자신의 호흡을 기준으로 환자의 맥박수를 살핀다. 이것이 오늘날의 의료인은 건강의 표준을 자기 자신에다 두지 않고, 시계를 보면서 1분간에 맥이 몇번을 뛰는 가를 측정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처럼 의료인은 건강의 기준이 되므로 평인이라 한다. 한열로 본다면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한열온량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평인이라 하듯이, 한열온량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평이라 한다.

신농씨는 황제와 마찰가지로 전설상의 인물이고 실존한 인물은 아니지만 한열온량의 기준을 스스로 먹어보고서 기미를 알고 약효를 정하였다면, 평인으로 건강하여야 하였고, 약을 맛보는 시간은 아침을 먹기전 해가 뜨려고 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선인들은 건강한 사람을 평으로 기준하고서 한열온량을 나누었지만, 약은 일반인도 먹지만 환자도 먹는다. 따라서 한의학의 사고로서는 약과 이를 복용하는 자와 주위환경을 함께 생각하여야 약재의 한열이 결정된다. 약이 그 자체로서는 뜨겁더라도 먹는자가 몸이 차거나 주위온도가 차면 그다지 독성은 발하지 않는다. 약성이 반대일 경우도 마찰가지이다. 대표적인 예로 부자와 석고를 들 수가 있다.

부자의 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생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포하여 사용한다. 생으로 사용하면 回陽救急하는데 『상한론』에서는 반드시 건강을 더하였고 처방이 건강부자탕·백통탕·백통가저담즙탕·회역탕·회역가인삼탕·복령회역탕·통맥회역탕·통맥회역가저담즙탕 등 8처방이 있다.

포하여 사용하면 풍습을 없애고 통증을 가라앉힌다. 부자는 수입품으로서 포한 것은 당포부자와 경포부자가 있고, 소금에 절인 염부자가 있다. 주 성분도 2가지인데 aconitine과 higenamine이다. 포부자는 higenamine이 작용하여 강심작용이 있어 혈압을 올리고 관상동맥을 확장시킨다. 생부자는 한기를 없애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aconitine이 작용한다. 이 aconitine은 중독성이 강하여 골격근을 마비시키는데 특히 운동신경이 많이 분포한 사지·귀·눈등의 근육을 마비시키며, 나중에 호흡근과 횡경막을 마비시켜 질식사하게 한다. 부자는 장에서 흡수가 빠르므로 중독도 10분에서 1시간 정도뒤에 나타나는데 빠르면 10여초만에도 나타난다.

생부자를 110℃나 120℃에서 40분간 달이면 aconitine이 aconine으로 바뀐다. aconine은 aconitine 에 비하여 독성은 1/2000-1/4000으로 낮지만 風濕을 없애는 것과 鎮痛力은 유지한다. 그리고 포부자는 생부자의 1/5-1/350정도이다. 이러더라도 higenamine 은 그대로 있다. 금기는 백급·반하·백렴·파루인·패모이다.

이처럼 약재 자체만으로는 독약인지 아닌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기는 어렵다. 약재와 사람, 질병 그리고 계절을 생각해야 한다. 부자는 기온이 18℃가 넘으면 아코니틴 중독이 잘 된다. 이보다 낮으면 중독은 되지 않는다. 마찮가지로 환자의 몸상태가 망양에 가깝다면 아코니틴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본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를 백호가인삼탕에서 볼 수가 있다. 『금궤요략』의 주문에 의하면 입하에서 입추까지는 약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후로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1,2,3월에도 금하였다. 망혈가와 약한 자에게도 금하였다.

## 6. 기미의 작용부위

한약재는 오미와 사기에 약효가 다른데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 가도 고려해야 한다. 한열은 양에 있어서 대황·지모·치자·황금·황련이 모두 차지만 인체의 모든 부위를 똑같이 차게하지는 않고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차게 한다. 예를 들면 황련·치자·황백은 모두 차지만, 황련은 심장의 열을 식히고, 치자는 상초의 열을, 황백은 하초의 열을 식힌다. 건강·부자등 온중약은 몸을 데우고 박하·향유등 辛涼解表약은 표면을 식힌다.

그리고 한열의 기준이 인체에서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오장은 기능이 계절과 통하고 오행의 원리라도 같으므로, 간은 봄의 기운을 닮아 따뜻하고 심은 여름기운을 닮아 더우며, 폐는 가을기운을 받아 서늘하며, 췌장은 겨울기운으로 차다. 따라서 한열에 있어 간은 평균치에 접근하지만 올라가려 하며, 심은 평균치 보다도 높고, 폐는 평균치에 접근하지만 내려가려 하며, 췌장은 평균치보다도 낮다. 췌장의 기능에 속하는 생식기는 고환의 경우 정상체온보다도 2℃정도 낮다.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는 고환이 표면적을 늘려 열을 식히는데 날이 지나치게 더우면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정자생산이 중지되고 불임이 된다. 인체를 상하로 볼 때 '頭寒足熱'이라 하고, '頭無冷痛, 腹無熱痛.'이라 한다. 머리는 정상체온범위가 인체의 평균치보다도 낮으므로 싸늘하게 해야 한다. 흔히 하는 말에 머리를 식히자는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하고, 『周易』에서 '水升火降'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이처럼 한열의 기준이 오장마다 달라 心の 정상치는 다른 장기보다도 높다. 따라서 心の 열을 식혀 정상에 되찾게 한다는 것은 체온의 평균치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心の 정상치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오장의 평균치보다도 높다.

## 7. 기미후박과 승강부침

맛을 오행의 틀에 넣어 산고감신함으로 나누어 보고, 기를 오행의 틀에 넣어 한열은량평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틀로서 기와 미를 함께 오행의 틀에 넣는다면 氣味를 각각 厚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한약의 기미를 五氣·五味로 나누어 관찰하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무수한 편차가 있다. 단맛을 예로 든다면 감초와 대추의 단맛은 다르고, 설탕의 단맛은 포도당의 단맛보다도 훨씬 강하다. 뜨거운 것을 예로 든다면 부자와 건강이 모두 뜨겁지만 부자의 것은 乾薑의 것보다도 강하다.

「음양응상대론」에서는 기미를 음양으로 구분하였는데 기는 양이고 미는 음이 된다. 그리고 기미를 각각 음양으로 나누어 기가 진한 것은 양중의 양이고 기가 연한 것은 양중의 음이다. 미가 진한 것은 음중의 음이고 미가 열은 것은 음중의 양이다. 이를 계절로 본다면 기가 진한 것은 여름이고 기가 엷은 것은 가을이고 맛이 진한 것은 겨울이고 맛이 엷은 것은 봄이다. 이를 작용하는 면으로 본다면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滲泄, 厚則發熱.'이 된다.

맛이 진한 것은 설하고 미가 연한 것은 통하며, 기가 진한 것은 발열하고 기가 엷은 것은 삼설한다. 계절로 본다면 미가 후한 것은 겨울이고, 미가 박한 것은 봄이며, 기가 후한 것은 여름이며, 기가 박한 것은 가을이다. (Table. 1.)

Table. 1. 기미후박

기후	양중지양	여름	발열	淸陽出上竅
기박	양중지음	가을	삼설	
미후	음중지음	겨울	설	濁陰出下竅
미박	음중지양	봄	통	

이 외에도 승강부침이 있고 귀경론이 있다.

승강부침도 오행의 틀에 맞춘다면 4가지에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것을 하나 더하여야 한다. 목화토금수는 각각 승부평강침으로 된다. 봄의 기운은 땅에서 위로 나오는데 이를 승이라 한다. 익위승양탕이라 함은 이를 의미한다.

가을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 이를 강이라 한다. 자음강화탕을 대표로 들 수가 있다. 여름기운은 위에 떠있으므로 부라 한다. 개구리밥을 물에 뜬다하여 부평초라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겨울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 침이라 한다. 나무이지만 물에 가라앉는 沈香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꽃은 방향성이 있어 기운이 위로 뜨지만 선복화만은 기운을 끌어 내린다. 씨앗은 무거워 기운을 끌어 내리지만 창이자만은 끌어올린다. 금속성은 대개 기운을 끌어 내린다. 『소문』 「病能論」에서는 “陽明은 언제나 움직이지만 巨陽과 少陽은 움직이지 않는데 만약 미친 듯이 화를 내면 거양과 소양이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여 큰 병이 된다. 生鐵落물을 마시게 하는데, 生鐵落은 기운을 끌어 내리는 것이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sup>14)</sup>

14) 岐伯曰: 陽明者常動, 巨陽少陽不動, 不動而動, 大疾, 此其候也.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奪其食則已, 夫食入於陰, 長氣於陽, 故奪其食則已, 使之服以生鐵落爲飲. 夫生鐵落者, 下氣疾也.

帝曰: 善. 有病身熱解墮, 汗出如浴, 惡風少氣, 此爲何病.

생철락이라 함은 철을 달구었을 때 떨어져 나온 쇠조각 불똥이 식어 된 것이다. 생철락은 물보다도 훨씬 무거우므로 이를 먹으면 기운이 내려가게 된다. 이것으로 집히는 것은 음허화동에 사용하는 육미지황탕이 달여놓았을 때 매우 무겁고 결속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화기가 약하여 자체무게도 견디지 못하고 하수가 될 정도인 자가 육미지황탕을 먹으면 소화기에 무리가 가게 된다. 『상한론』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살필 수가 있다. 161조에 “傷寒，發汗，若吐若下，解後，心下痞硬，噎氣不除者，旋覆代赭湯主之。”라고 하여, 상한에 땀을 낸 뒤에 토하였던가 설사시켜 상한은 풀어지고 난 뒤 명치가 막히고 단단하며 트림하는 것이 그치지 않으면 선복대자탕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심하비의 병인은 『소문』, 『음양응상대론』에서 “청기가 아래에 있으면 설사하고, 탁기가 위에 있으면 창만한다”는 것이다. 물은 더워지면 탁해지고 차가워지면 맑아진다. 트림이 나는 것을 旋覆花와 代赭石등으로 기운을 끌어 내리는 것이다.

『영추』, 『경맥』에서는 족소음신경을 뜸뜸 때 5가지를 병행하도록 주문하였다. 첫째는 날고기를 먹고, 둘째는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고, 세째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네째로서는 큰 지팡이를 짚고, 마지막으로서 땅을 힘있게 밟은 상태에서 걸어라고 되어있다.<sup>15)</sup> 이 다섯가지는 모두 腎의 陰을 보하는 것이다.

『사기조신대론』에서 봄에는 일찍 일어나서 뜸을 성큼성큼 걸어라고 되어 있다.<sup>16)</sup> 이때에는 봄의 기운을 기르는 것이고 땅을 힘있게 밟은 상태에서 걸어라는 것은 겨울의 기운을 기르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겨울기운을 기려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보다는 땅을 내리누르는 힘이 더 세고, 봄의 기운을 기르는 것은 땅을 내리누르는 힘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더 센 것이다. 무게중심으로 보더라도 봄의 기운을 기르는 걸음걸이가 겨울기운을 기르는 것보다는 중심이 높다.

『경맥』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은 腎의 陽을 보하기 위하여 뜸을 뜨더라도 腎의 陰을 함께 보하는 것을 잊지말라는 말이다. 마치 『금궤요략』에 나오는 “腎氣丸” 일명 “八味丸”에서 肉桂·附子로서 腎의 陽을 보할 때에도 반드시 乾地黃·山茱萸·山藥·牡丹皮·澤瀉·茯苓등 腎의 陰을 보하는 六味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탕액본초』에서는 “麻黃은 기미가 모두 연하여 양에 속하며 기운이 오른다.”라고 하고, “대황은 맛이 매우 진하여 음에 속하니 기운이 내린다.”라고 하였다.

이시진은 “酸·鹹미는 오르지 않고, 辛·甘미는 내리지 않으며, 寒한 약은 뜨지 않고, 熱한 약은 내리지 않는다.”<sup>17)</sup>라고 하였다.

『지진요대론』에서는 “補上治上制以緩, 補下治下制以急, 急則氣味厚, 緩則氣味薄, 適其至所, 此之謂也.”라고 하여, 몸의 위쪽을 보하거나 위쪽을 치료하는 데는 풀어놓는 약으로 조제하고,

15) 灸則強食生肉 緩帶 披髮 大杖 重履而步.

16) 春三月, …… 夜臥早起, 廣步於庭.

17) 李時珍. 『本草綱目』, 『序例 第1卷』, 『升降浮沈』: “李時珍曰: 酸鹹無升, 甘辛無降, 寒無浮, 熱無沈, 其性然也.”

아래를 보하거나 아래를 치료하는대는 오그라들이는 약으로 치료하여야 하는데, 오그라들이는 약은 기미가 진하고 풀어놓는 약은 기미가 순하다고 하였다. 완과 급은 『소문』 「장기법시론」에서 “肝苦急, 急食甘以緩之”라고 하였고, ‘완급을 조절하다’는 말이 있듯이 완과 급이 의미가 반대로서 완은 계절로 보면 봄과 여름에 해당하여 풀어놓다, 풀어놓다, 완화시키다는 의미이고 급은 가을, 겨울에 해당하여 모으다, 오그라들이다는 의미이다. 위쪽을 보하거나 치료할 때는 냄새를 맡았을 때 마음이 풀어지는 것과 가벼운 것으로 치료한다.

吳儀洛의 『本草從新』 「약성총의」에 기가 박하면 발설한다는 것은 계지가 상행하여 해표하는 것이고, 기가 후하면 발열한다는 것은 육계가 하행하여 신을 보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기미와 승강부침

熱鹹浮軟心		
平甘		
溫辛升散肝	不升不沈, 緩	涼酸降收肺
脾		
寒苦沈腎堅		

### III. 결론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미란 산고감신햄 오미와 한열온량 사기를 의미한다. 이는 음양오행론에 근거하는데, 오행은 계절변화를 근거한 것이다. 계절에서 봄·여름·가을·겨울은 뚜렷하지만 장마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氣論에서 한열온량외에 쑤을 들기도 하는데 계절에서 장마가 뚜렷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味와 氣를 대비한다면 溫과 辛과 봄, 熱과 鹹과 여름, 平과 甘과 장하, 涼과 酸과 가을, 寒과 苦와 겨울이 된다.

한열온량의 정도에 있어서도 미한·한·대한등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계절변화가 연속적인 것이지만 단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작용부위에 있어서는 비록 같은 부류에 속한 약재일지라도 인체의 모든 부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작용하는 부위가 있다.

작용기전에 있어서도 치자는 상초의 허열을 식히고 대황은 하초의 실열을 식힌다. 박하등 신량해표약은 표면에, 청열해독약은 이면에 작용한다.

따라서 한열온량약을 실험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가정할 수가 있다.

첫째는 한열온량으로 배속된 약물군이 각각 다른 군과 확실히 구분되는 지표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한성약인 대황·황연·황금·치자·지모·석고등을 모두 만족케 하면서도 열성약인 부자·육계·건강·오수유·세신등과는 구분되는 지표가 한 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온리약·해표약·거담약·이기약등으로 분류할 때 이들 각 군을 만족케 하면서도 다른 군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지표가 있는 경우이다.

셋째는 개별 약재마다 한열은량을 구분짓는 지표를 따로따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색인어】 기미, 오미, 사기, 음양오행, 熱性藥, 寒性藥

### 參考文獻

1. 『淮南子』 「卷19 修務訓」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3. 徐樹楠·牛兵占. 編著. 『神農本草經』. 河南: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94.
4. 鄭玄주. 『周禮』 「天官冢宰下·食醫」. 臺北: 臺北科學技術出版社, 1994.
5. 김인락. 「고려시대이전의 기초의학」. 신순식외. 『고려시대 이전 한의약학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1996.
6. 吳普. 『吳普本草』
7. 李中梓. 『醫宗必讀』 「藥性合四時論」
8. 王好古. 『湯液本草』
9. 寇宗奭. 『本草衍義』
10. 張仲景. 『金匱要略』
11. 吳儀洛. 『本草從新』 「약성총의」
1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3.
13. 李時珍. 『本草綱目』 「序例」 「第1卷 升降浮沈」.

= ABSTRACT =

## A study on the literal research kimi - theory

Kim In-Rak, OMD, PhD\*

Kimi(氣味) means five tastes(五味), sour, bitterness, sweetness, hot taste and astringency, and four conditions(四氣), cold, hot, warm and cool, in the oriental medicine. This is defined based on yn-yang 5 evolutive phasis(陰陽五行), and 5 evolutive phasis on the change of season. Four seasons, spring, summer, autumn, winter are clearly different but, the rainy season(長夏) is not. In the theory of Ki(氣), not worm not hot(平) is included in addition to the four conditions that is because the rainy season is not differentiated clearly. KImi have relations to the

---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four seasons, that is, warm and hot taste is considered as spring, hot and astringency as summer, not worm not hot and sweetness as rainy season, cool and sour as autumn, and cold and bitterness as winter. 4 conditions can be classified more detail, because the changes of the seasons are continuous. In the action mechanisms, Gardeniae Fructus reduces Heat of Insufficiency Type(虛熱) of the upper class of medicinal herbs(上焦), and Rhei Rhizoma reduces Excessive Heat(實熱) of the under class of them(下焦). The assay methods for four groups medicines can be developed in three ways according to the indicators as follows. First, by the indicator which defines cold-acting medicine(寒性藥) such as Rhei Rhizoma, Coptidis Rhizoma, Scutellariae Radix, Gardeniae Fructus and is differentiated clearly from Hot-acting medicine(熱性藥) at the same time. Second, when the medicines are classified into another four groups as Drugs for Dispelling Internal Cold(溫裏藥), Drugs for Relieving Exterior Syndrome(解表藥), Drugs for Dispelling Phlegm(祛痰藥), Drugs for Regulatings Ki Flow(理氣藥), by the indicator which satisfies each group and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groups, at the same time. Third, by the indicator which has to be defined for each medicinal herb for four classification, individually.

**[key words]** kimi, five tastes, four conditions, yn-yang 5 evolutive phasis, hot-acting medicine, cold-acting medicine